4차시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알아봅시다

◉ 다음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였습니다. 당시 죽어간 사람 중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당시 죽음을 맞이한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각 인물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례 1> 억울한 죽음을 맞은 초등학교 3학년 이지명 어린이

어디선가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비명이 들렸어요.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죠. 지명이의 어머니는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 보았어요. 그곳에는 계엄군의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세 아이가 있었어요. 지명이와 언니, 그리고 오빠.

<사례 2> 용기 있는 죽음을 맞이한, 광주상고 1학년 문재학 학생

문재학은 도청 안에서 다친 분들을 돌보는 활동을 했어요. 그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죽었는데 집에 돌아가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도청에 남아 심부름이라도 해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집으로 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계세요." 하지만 그는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계엄군의 진압 작전 때에 죽임을 당했어요.

● 이지명 어린이 죽음에 대한 생각:

● 문재학 학생의 죽음에 대한 생각:

[출처] 5.18 기념재단(2017)

탐구하기

A: 서울신문 보도 자료

1980년 5월 24일 자 <○○신문>엔 시민군들이 군용 트럭을 탄 모습이 크게 실렸다. '군용 트럭 뺏어 타고'란 큰 제목 밑에 '각종 소총과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폭도들이 빼앗은 군용 트럭을 타고 광주시 중심가 금남로를 질주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다.

B: 5.18 당시 광주여고 3학년 주소연 학생의 일기

1980년 5월 22일 목요일

우리는 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싸운 민주인사들을 구속시키다니 이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는가? 소위 민주주의란 나라가 민주 인사를 죽이다니, 이 같은 일이 세계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갖은 만행을 벌여 사망자는 밝혀진 사람만 200명을 넘어서고 실종자는 병원의 한 동에 몇 사람꼴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매스컴은 일절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지 않으며 정부 편에 서서 우리 민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고 있다.

C: 외국 언론 보도 자료

일반 시민들은 데모대에 동조하고 있으며 18일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공수 부대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대검에 찔리고 구타당했으며, 수요일에는 군대의 발포로 최소한 32명이 사망하였다.

New York Times

PROTESTERS CONTROL SOUTH KOREAN CITY, AT LEAST 32 KILLED

- A, B에서 광주시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 A, B, C 중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왜 그럴까요?
- 내가 만약 그때 광주시민이었다면 잘못된 언론의 글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외부에 모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 여러분은 5.18에 참여한 시민과 이를 진압한 계엄군의 모습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버지의 영정 사진

1980년 5월 20일, 다섯 살 난 아이 조천호의 아버지 조사천 씨는 아내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광주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군인들에게 학생들이 맞는 것을 보았다. 그들을 뜯어말리는데 군인들은 몽둥이를 조사천 씨에게로 돌렸고, 놀란 아내는 얼른 남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도 조사천 씨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결국은 밖에 나가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고, 21일 시민들이 몰고 다니던 트럭에 올라탔다. 그런데 함께 나갔던 일행이 급히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집을 나간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총에 맞았다는 것이다.

[출처] 문재경(2013). 초등학교 역사수업에서 민주주의 가르치기. 역사와 교육. (8). 120.

-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 조사천 씨는 왜 시위에 참여하였나요?
- 조천호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 조사천 씨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5.18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었을까요?

◉ 우리 학교생활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바꾸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건의해보세요.

① 교실, 학교, 마을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찾는다.
②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잘 나타나도록 한 문장으로 만들어 카드에 쓴다. (예를 들어 "수도 시설을 고쳐 주세요", "놀이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등)
③ 문장을 다 적은 뒤에 친구들과 함께 동그랗게 둘러선다.
④ 한 명씩 원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신의 요구 사항을 큰소리로 자신 있게 말한다.
⑤ 선생님께 건의하는 편지를 써서 전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시민군!

[출처] 5.18 기념재단(2017)

위의 사진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의 모습을 작품화하여 5.18 국립묘지에 설치한 것이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은 국가의 부당한 권력에 항의했다. 그들은 위대한 한두 명에게 기대지 않고, 평범한 사람 여럿이 모여 두려움을 이기고 함께 불의에 맞서 싸웠다. 정부는 1995년 12월 21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당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신 시민군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자 하였다.

● 동상은 어떤 모습을 나타낸 것일까요?

● 왜 위의 동상은 이곳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